

여수 만흥동 일원, 해양관광 핵심 거점 만든다

‘여수로 섬-잇(Sum it) 트레일’ 전남형 균형발전300 공모 선정 세계박람회장~만성리해수욕장 300억 투입...관광벨트로 연결 “지역 관광 큰 전환점 될 것”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여수로 섬-잇

(Sum it) 트레일’이 선정돼 여수시가 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 발전사업을 통한 시군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로 섬-잇(Sum it) 트레일’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만흥동 일원을 해양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고 관광 시설 현대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만성리해수욕장을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시는 도내 17개 시군과의 경쟁 속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참신한 사업 아이템, 해안 경관을 활용한 입지 적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바다를 조망하는 ‘친환경 트레일’, 바닷속을 들어 온 듯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마래아트터널’, 액티비티와 휴식이 공존하는 ‘마래아일랜드’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여수관광통합 앱 ‘여수엔’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관광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관광콘텐츠·마케

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일레븐 브리지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과 맞물려 지역 관광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정기명 시장, 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 참관

산단 5개 소속 근로자 참여 독려

정기명 여수시장이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주요 산단 기업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 광역본부장과 김호주 전남동부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등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을 찾았다.

정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정전기·용접 폭발 및 현장 비계 추락, 롤러기 끼임 사고 등을 직접 체험하고 롯데케미칼(주), 폴리미래(주), 금호피엔비화학(주) 등 산단 5개사 공장장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제공되는 이론·체험교육 등을 안내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 시장은 “관계기관별로 축적된 교육 자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이론과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산단 석유화학업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하에 16개사 종사자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재 일원에서 열린 ‘2024 전남 여수 슬로푸드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축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클린페이’ 도입... 공사대금 체불 척결

여수시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대금·임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 교보증권,페이컴스와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장실에서 정기명 시장과 김국환 신한은행 본부장, 조성호 교보증권 IPS본부장, 홍종열 페이컴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수행 총괄 및 대금 지급을, 신한은행은 자금관리시스템 업무 총괄을, 교보증권은 신탁 계약 업무 총괄을, 페이컴스는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 총괄을 맡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함께 개발한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제도를 연계한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다.

공사업체의 부도, 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사대금 채권은 계좌가 아닌 해당 신탁계정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원도급사에서는 지급한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금급 유통 방지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 시장은 “하도급 지급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대금과 노동자 임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해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10명 공개 모집

여수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모집인원은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팀원 5명 등 총 10명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근무한다.

신청 자격은 거주지 제한 없이 11월 18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사무국장·팀장의 경우 도시재생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수는 △사무국장 지방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 하한액 △팀장지방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 연봉 하한액 △팀원 여수시 생활임금 등을 준용한다.

연봉 외 급여로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며, 사무국장·팀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이 추가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며, 시 누리집(www.yeos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응시원서를 도시재생과(공동체활성화팀) 방문 또는 등기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내달 중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공정한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4 전남 여수 슬로푸드 축제’ 성료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재 일원에서 열린 ‘2024 전남 여수 슬로푸드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여수시와 전남도관광재단,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슬로푸드여수지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수의 맛, 남도의 맛, 한국의 맛’을 주제로 지역 음식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2026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2026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국제슬로푸드협회 회원과 한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전남대학교 글로벌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여수시다문화센터 이주여성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제슬로푸드 파운데이션 마르타 메사 사무총장과 안드레아 보르고나 코디네이터,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마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이 참석해 2026국제슬로푸드 총회 관련 회의·숙박 시설의 사전답사를 마쳤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슬로푸드 컨퍼런스, 맛 워크숍, 음식의 향연, 슬로푸드 활동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색다른 음식문화의 장을 선보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회원들이 쓰레기 배출 최소화에 동참해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 160개국 10만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제슬로푸드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섬 음식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2026국제슬로푸드 총회를 유치해 섬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 여수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나만의 책표지 그리기 전국 대회’ 우수작 32편 선정

여수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주관한 ‘2024년도 여수시 나만의 책표지 그리기 전국대회’에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작 32편을 선정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순신도서관에서 본 대회를 개최해 작품 140편을 접수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와 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에서 추천한 전문 심사위원 4명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소복이 작가의 그림책 ‘왜 우니?’를 표현한 중·고등부문의 전북 고창군 공음중 유지원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으뜸상에는 △초등(저) 부문 여도초 신정윤, 중앙초 백의민 △초등(고) 부문 송현초 김연애 △중·고등부문 여도중 허윤아 △일일반부 방세영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버금상에는 8명, 복돋음상에는 18명이



여수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주관한 ‘2024년도 여수시 나만의 책표지 그리기 전국대회’에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작 32편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 작품 ‘왜 우니?’ 여수시 제공

이름을 올렸으며, 전체 입상자 명단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여수시장상과 대상은 30만 원, 으뜸상은 20만 원, 버금상은 10만 원, 복돋음상은 5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중·고등학생과 성인의 참여율이 65% 증가

했고,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알뜰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책 160권을 포함해 210권이 판매되며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독서 열풍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